

# 칼빈의 5대 교리

전적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의 가르침은 개혁교회를 이끌고 있는 중심된 가르침으로 그것을 요약하여 정리한 칼빈의 5대 교리는 신본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1600년대 알미니우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며 인본주의적 복음해석을 주창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네델란드 도르트에서 열렸던 교회공의회는 칼빈의 가르침을 다섯가지로 5대강령으로 잘 요약하여 그 후 교회의 바른 복음 이해와 이단에 대한 바른 대처에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우스의 인본주의적 오류 (1항)와 칼빈의 신본주의적 바른 가르침(2항)을 비교하여 자세히 정리하여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 1. 부분타락

인본주의(자유주의)자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에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완전타락을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믿게 할 수는 있으나,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 각자는 자유의지를 갖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중생 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망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2. 전적 타락

그러나 칼빈은 바울과 같이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이해함을 잘 파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 2:17절에서 불순종할 때 '정녕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3:10 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도록 주어진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간에게 양심마저도 없다면 동물과 마찬가지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대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롬2:14-15,20).

나.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부로 선택하시지 않고 무조건 선택하십니다.

### 1. 조건부 선택

알미니우스와 그를 뒤이은 인본주의 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여 구원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하리라는 것을 아셨다는 예견(예지, 부르시면 응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신앙을 선택하고, 이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예지에정론)

### 2. 무조건 선택

그러나 바울과 같이 칼빈은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없이 예정하신 뜻대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하심을 전적인 은혜로 바르게 이해합니다. 에베소서 1:4-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예정 섭리에는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되는 작정과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딤후1:9),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딤후 1:9, 행13:48)(예정예지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이나 의지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이미 전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신 전능자이시며, 인간의 모든 의지는 그분께 종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제한적 속죄입니다.

### 1. 일반적 속죄(만인구원)

알미니우스와 같은 인본주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세계)을 위하여 죽었으며, 오로지 그러한 사실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대속이 효과를 보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2. 제한 속죄

그러나 바울과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은 속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제한적 속죄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0:45에서 인자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말씀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이십니다. 다른 말로 특별 속죄라고도 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택함을 입은 자녀의 죄만을 제한하여 대속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14-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말씀에서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였으며, 사도 바울도 로마서 8:33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 하리

요'와 로마서 8: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에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송사를 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 택하신 자들이 은총을 거부할 수 있는 가항력적 은총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총은 성도들에게 불가항력 은총으로 임하십니다.

### 1. 가항력 은총(은총을 거절할 수 있다는 가르침)

인본주의 자들은 성령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할 수 있는 일은 하시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에 저항할 수가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죄인이 믿을 때까지 중생 시킬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이 저버릴 수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 2. 불가항력 은총

그러나 바울을 좇아서 칼빈은 분명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보입니다. 이를 '효과적인 부르'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와 디도서 3: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 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신 은혜의 섭리만이 요구되 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하심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아니하며, 오직 그분의 전능하심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 성도들에게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것으로 성도 들로 끝까지 견인하게 하십니다.

### 1. 구원의 불확실성

인본주의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연결되어 일치될 때에 라야 만이 인간의 구원이 성립된다는 신인공동사역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 구원 받은 사람도 신앙 을 잃고 타락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구원을 의 심하게 되어 불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 2. 성도들의 견인(확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그 굳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6:17-1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점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 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너무도 확 실한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1-22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도의 보증과 인이 되어 주심으로, 이러한 약속들을 굳게 확립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틀림없는 보호를 입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조: 인터넷, 칼빈의 오대교리. 김동일전도사 (진리의 교회, 의사) 요약본